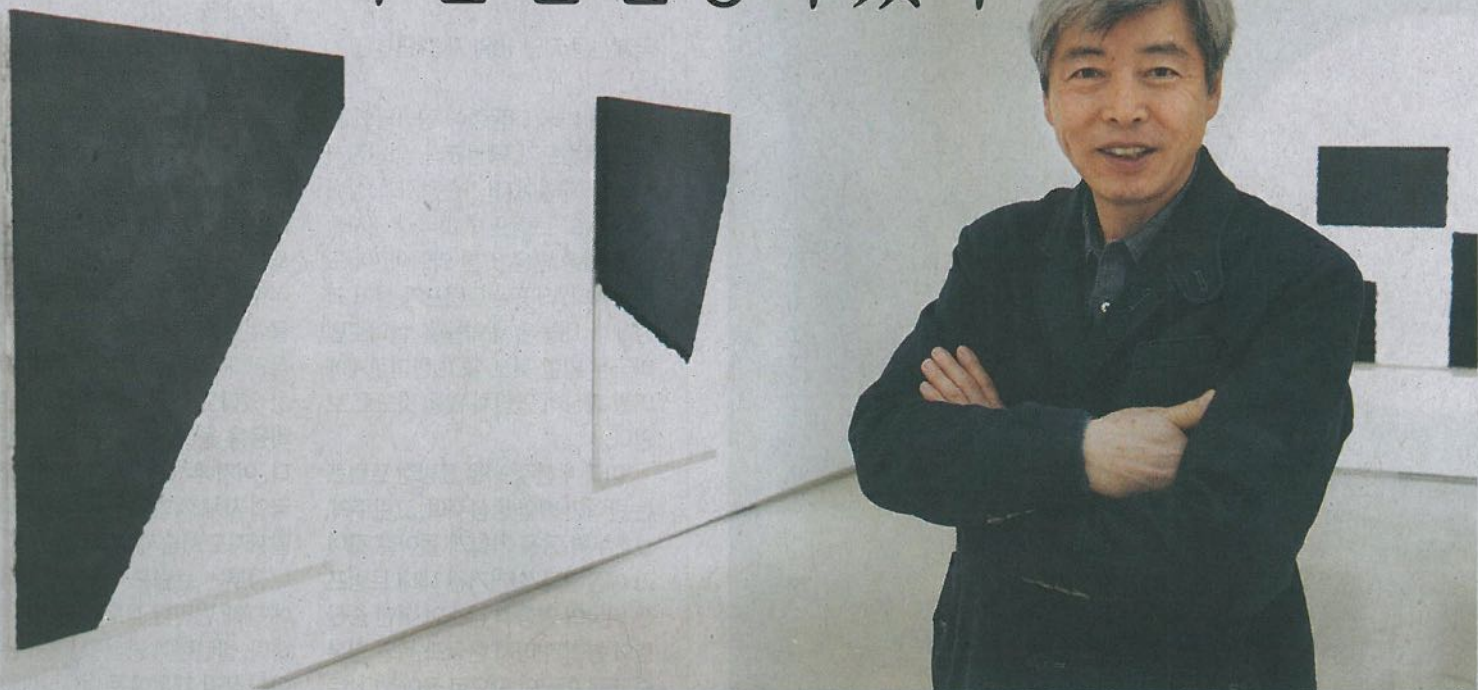


새까만 덩어리에 수천 년 문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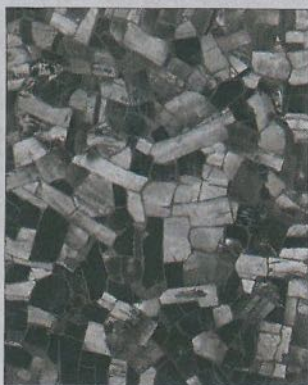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구 조현화랑에서 열리는 개인전 준비를 위해 프랑스에서 부산으로 온 이배 작가가 2000년대 초 작품 'landscape' 시리즈 앞에 섰다. 김성호 기자 kimsh@kookje.co.kr

프랑스 거주 작가 이배 개인전 조현화랑서 내년 1월 8일까지 초기-최신작 한자리에 전시 서예인듯 수묵화인듯 초연히 숯으로 은연중 몸의 기억 표현

‘숯의 화가’.

프랑스파리에 거주하며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 활발히 전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 이배(60). 그는 1989년 프랑스 이주 후 ‘바비큐’를 구울 때나 사용하던 숯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 “제가 살던 문화권에서 비롯된 정체성이 없다면 서양 미술계에서 쉽게 아류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숯은 먹의 재료입니다. 거대한 수묵 세계의 바탕이죠. 아시아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감성을 표현하는 물질로 몇천 년 동안 사용됐습니다. 이 문화적 감성으로 뭔가 해봐야겠다 싶었죠.”

내년 1월 8일까지 조현화랑(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에서는 2000년대 초의 ‘Issu du feu’ 시



‘Issu du feu’ 시리즈(왼쪽)와 올해 완성된 작품. 조현화랑 제공

리즈와 ‘landscape’ 시리즈, 최신작을 모두 볼 수 있다.

‘Issu du feu’ 시리즈는 수백 개 숯 단면을 캔버스에 하나하나 붙인 작업이다. 숯은 단순히 검지 않다. 화면을 가득 메운 숯 단면은 각기 다른 색과 빛을 발한다. ‘landscape’ 시리즈는 숯가루를 짓이겨 용제인 아크릴메디엄과 섞어 화면에 두껍게 붙인 작품이다. 숯의 본질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다양한 형태로 확장 시도했다. 최신작은 숯과 메디엄을 섞어 만든 먹으로 그린 검은 획이 캔버스 안을 부유하듯 떠있는 형상이다.

2000년대 초기 작품에서 숯의 물성 자체를 강조했다면, 최근작에서 숯은 작가의 ‘몸의 기억’을 풀어내는 도구가 됐다. 그는 “얼핏 보면 그 둘이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실은 같은 프로세스”라며 “벼루에 먹만 열심히 갈다가 갈린 먹으로 할 뭔가를 찾은 것이다. 수묵의 세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인듯, 수묵화인듯도 보이는 최근 작품은 작가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몸의 기억’을 표현한 것이다. “두뇌의 기억은 믿지 못해요. 쉽게 변형되고 왜곡되죠. 몸의 기억은 거짓을 말하

지 않습니다.” 작가는 매일 아침 큰 종이에 몸이 기억하는 무엇을 먹으로 그린다. 마음에 든 것을 골라 캔버스에 옮기고, 투명한 매디엄으로 덮는다. 다시 그 위에 형태를 똑같이 따라 그리고 덮는 작업을 두 차례 더 한다. 작가는 이 과정을 ‘박제’라고 설명했다. “화면에 행위의 흔적을 박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밀랍 안에 물체를 가두는 것처럼요.”

‘몸의 기억’이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아니다. “어떤 기억이냐고요? 나도 몰라요. (웃음) 하지만 뭔가 짜여 있지 않고 제도화되지 못한 자연에서 오는 혼돈 같은 느낌이 농촌(그의 고향은 경북 청도)에서 자란 내 몸의 기억이구나 싶어요. 맨해튼에서 자란 사람은 절대 이런 작업이 안 나올 거예요. 황톳길에서 걸음마를 배운 사람의 ‘몸의 기억’은 사막이나 섬에서 자란 사람과 달라요.”

흑백 외에 다른 색을 사용할 생각도 있다. “지금 하는 작업도 10년 넘었어요. 새로운 구상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색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하지요. 내년에는 차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